

중 사스 영웅 “코로나19 4월 마무리 전망”

중난산 “2월말 절정후 감소세” “잠복기 24일 과학적 근거 없어” 후베이성 방역당국 책임 요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전역에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鍾南山) 중국공정원 원사가 현 추세를 유지하면 2월 말 절정기를 지나 4월 전에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현지 매체는 중 원사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12일 이같이 보도했다.

중 원사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이 추세가 이어져 2월 말 절정기를 지나 4월 전에 사태가 마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월 말 절정기에 달한 뒤에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감소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예측의 근거는 현재 환자 수 등 수학적 모델과 최근 감염병 현황, 정부의 모든 조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광둥(廣東)과 저장(浙江)은 신규 환자 증가 수치가 줄고 있다”며 “우한의 경우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우한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며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 원사는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했던 의사 리원량(李文亮)에 관해서 “그는 영웅이며, 많은 중국 의사가 그와 같다”고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중국 매체는 그가 리원량을 거론하면서 ‘오열’했다고 전했다. 중 원사는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잠복기가 가장 24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 원사는 중원성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연구팀이 전국 30개 성 522개 병원에서 임상 자료를 남겨받아 1099개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의 잠복기는 가장 24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잠복기가 24일인 경우는 전체 1099개 사례 중 단 1건뿐이었다”면서 “이는 환자의 발견 시점을 근거로 가장 잠복기를 추측한 것이라 과학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선례는 광견병과 같은 다른 질병에도 있다”면서 “우리 연구 결과 코로나19 환자들의 잠복기 평균치는 4일로, 이 분석이 더 과학적으로 전체 상황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의 영웅으로 불리는 중 원사는 전남 광주(廣州)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원격 회선에서도 이날 말 코로나19가 절정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뉴햄프셔 주에서 실시된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선 경선 유력후보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맨체스터의 한 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도착,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美 민주당 뉴햄프셔 경선 샌더스 박빙 1위

부티지 2위·바이든 5위 몰락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뉴햄프셔 주에서 실시된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두번째 대선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피트 부티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전 시장을 누르고 1위를 차지, ‘아웃사이드 볼풀’을 재확인하며 설욕했다.

첫 경선자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단숨에 1위로 도약하며 ‘백인 오바마’ 돌풍을 몰고온 부티지 전 시장은 선두를 내렸지만 샌더스의 텃밭에서 턱밑까지 추격하며 바람을 이어갔다.

경선 초반전이 샌더스-부티지간 ‘신(新)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듯한 흐름이 연출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초반 2연전에서 ‘장군명군’으로 1승씩 주고받으면서 판이 출렁이고 있다.

에이미 클로버사 상원의원이 3위로 치고 올라오며 뒷심을 발휘할 가운데 아이오와에서 4위로 체면을 구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5위로 한계단 더 추락, 대세론에 큰 타격을 입었다.

미 CNN방송은 이날 밤 11시 20분께 샌더스 의원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무렵 90% 개표 결과, 샌더스 상원의원이 26.0%로 1위를 차지했고, 부티지 전 시장이 24.4%로 그 뒤를 바짝 뒤쫓으며 박빙의 승부수가 펼쳐졌다.

에이미 클로버사 상원의원이 19.8%로 3위를 차지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9.3%로 4위에 그쳤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8.4%로 그쳐 5위로 추락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아이오와 석패의 아픔을 딛고 1위에 올랐지만 지난 2016년 당시 뉴햄프셔에서 60.40%의 득표율을 기록, 37.95%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22.45%포인트의 큰 격차로 따돌리며 완승한 것에 비하면 표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부티지 전 시장은 아이오와에서의 첫 깜짝승리를 발판으로 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은 아이오와 코커스 때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마나한 경선’ 양상을 또다시 연출했다. /연합뉴스

공포의 디크루즈선...코로나19 감염자 174명으로 늘어

마스크·장갑 착용 검역관 포함 일본내 첫 10대 감염 사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 정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39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확인됐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高)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요코하마(横浜)에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에 대한 코로나19 추가 검사에서 승객 29명, 승무원 10명 등 39명이 양

성반응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의 감염자 수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74명이 됐다. 전체 승선자(3천 711명)를 기준으로 따지면 4.7%가 감염 판정을 받은 셈이다.

가토 후생상은 또 승선자와는 별도로 검역관 1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도통신에 따르면 이 검역관은 유람선이 요코하마항 쪽으로 들어온 지난 3일 밤부터 4일 밤 사이에 승선해 체온을 측정하고 설문지를 회수하는 일을 맡고 5-7일 검

역소에서 정상근무한 뒤 9일부터 발열이 시작돼 이날날 검진을 받았다.

일본 당국은 현재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 검역관이 선내 검역 업무를 하면서 마스크와 장갑을 썼지만 방호복과 고글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초기 검역 과정에서 허술하게 대응해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본 당국이 검역원의 안전 문제도 쟁점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검역원 감염을 계기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작업하는 검역관 전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도통신은 이날 새롭게 감염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일본인 3명과 외국인 1명 등 60-70대 남성 4명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다고 보도했다.

또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 중에는 10대가 포함돼 있다며 일본 내에서 10대 감염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당국은 이 크루즈선에 남아 있는 3500여명 중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어서 감염 판정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해 가상화폐 범죄로 전년 2.6배, 5.3조원 손실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의 2.6배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포섹 업체인 사이버트레이스 보고서에 인용해 지난해 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손실은 45억2000만 달러(약 5조3280억원)로 2018년(17억4000만 달러)보다 160%가량 늘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기와 횡령에 의한 가상화폐 사용자와 투자자의 손실이 41억5000만 달러로 전년(6억5400만 달러)의 6.3배로 급증했다.

사이버트레이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브 제번스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거나 여러 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혼 결정한 영국 왕실 필립스 부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만수아 피터 필립스와 부인 오펜 웰리가 이혼을 결정했다고 버킹엄궁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2008년 5월 17일 영국 윈저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떠나는 부부 모습. /연합뉴스

미국서 반려견이 일가족 4명 물어 1명 사망

울들어 6번째 개물림 사망 사고

미국 시카고 근교의 가정집에서 성인 4명이 반려견으로 기르던 핏볼 테리어에 물려 1명이 사망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플레인필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피해자 데빈 화이트(25)가 입원 이틀째인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숨졌다.

현지 경찰은 “이 개는 사고 당일 밤 9시께 갑자기 화이트에게 달려들어 심한 부상을 입힌 후 나머지 3명을 공격했다”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핏볼 수컷이 끊임없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사살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핏볼이 특별한 자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 동물관리당국과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

MERITZ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AIG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AXA AXA 다이아몬드 BNP PARIBAS CARDIF The K손해보험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외국인자동차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K TMA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